

# “참 좋았습니다, 양림동의 그 향기”

## 31일 문 달는 다형다방

무인카페...양림동 투어 시작점

주민들 문화사랑방·아티스트 문화아지트

다양한 행사로 대표 문화공간 자리매김

추억·응원 메시지에 러브레터까지

두툼한 방명록에 갖가지 사연 담겨



김현승 시인 사진 등으로 꾸며진 '다형다방' 내부.



지난 5년간 무인다방으로 운영됐던 양림동 '다형다방'. 오는 31일 문을 닫는다.

### '굿바이 다형다방'

'근대문화유산의 보물창고' 양림동을 걷다보면 눈에 띄는 공간이 많다. 이국적인 풍취를 자랑하는 선교사 사택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 골목길 곳곳에 박혀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들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양림동 투어의 시작점이자, 양림동의 랜드마크 중 하나였던 '다형다방' 역시 양림동을 찾은 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공간이다.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공간'이지만 양림동 이야기를 담은 문화행사 등을 통해 양림동 대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4평 크기의 자그마한 '다형다방'은 커피를 좋아했던, 양림동의 시인 다형(茶兄) 김현승의 호에서 이름을 따온 무인카페이자, 문화 아지트다.

아쉽게도, '다형다방'이 오는 31일 문을 닫고 추억속으로 사라진다. 2012년부터 공간을 운영해온 (주)쥬스컴퍼니는 '다형다방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중이다.

다형다방에 들어서면 담배를 문 김현승 시인과 바이올린을 든 작곡가 정용성의 모습이 보인다. 양림동 토박이 한희원씨가 그린 양림동 풍경이 천정과 벽을 장식하고, 1920~30년대 양림동 모습이 담긴 낡은 사진을 보고 있으면 꼭 '시간여행'을 떠난 느낌이다. 지폐 한장 넣고 커피와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다형다방'은 꾸준히 양림동의 이야기를 담아온 문화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굿모닝 양림', '광주

1930 스토리클럽 기획전', '이강하 아카이브전' '양림달빛 투어' 등을 통해 마을 이야기를 담아냈고 아티스트들은 이곳에서 양림동을 노래하고, 그림을 그렸다.

지난해와 올해는 '1930 양림살롱' 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30 모던걸 다이어리' 등을 공연중이다. 또 문화 기획자 모임 이팔청춘 네트워크 파티, 주민파티, 문화의 달 전국 기획자 회의, 2012년 광주비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다형다방'은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양림동 방문객들에게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 두툼한 '방명록'엔 다형다방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잘 쉬고 간다"는 짙막한 인사말부터 오랫동안 광주를 떠났던 누군가에게 엄마 품을 떠올리게 해줬고, 광주를 처음 방문하는 이에게 흥미로운 추억을 안긴 공간이었다. 또 서로를 격려하고 행복을 빌어주고, 취업 대박 나자 다짐하는 응원의 메시지도 담겼다. 누군가에게 물려 쓴 러브레터도 보인다. 다형처럼 시 한편을 쓰고 가는 이도 있다.

"난 물 한잔, 엄마는 커피 한잔씩 마시고 1000원 넣었습니다. 양림동 그 향기에 취해 잘 둘러보고 갑니다.", "커피 한잔 따뜻하게 내준 얼굴없는 주인께 감사합니다. 500원 내고 민우가 커피 타주고 아, 행복하다.", "두번째 오는 광주, 일상에, 사람에 지쳐 지치고 괴로울 때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아 오늘을 회상하길.", "30년전 기억을 떠올리며 두 벽두벽, 김현승 시인의 시가 너무 좋고요, 한희원님의 그림이 멋집니다. 시간이 멈춘것같은 장소네요, 골목여행이 너무 재밌습니다." "커피 마시고 좋은 사진들을 보고 의

미있는 나들이였습니다. 추억과 재미가 묻어있어 좋습니다. 여기는 대도시처럼 무차별하게 개발따위 되지 않길."

'다형다방'은 무엇보다 도심 재생에서 문화적 거점 공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요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주도 재생 문화 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도시 재생 선진지 탐방으로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왔고, 그들이 주목한 점도 바로 '민간이 운영하는 성공 모델'이었다.

폐쇄 소식을 듣고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매입하는 방안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건물값 등으로 임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호응을 받을 줄은 몰랐죠. 무인카페에서 출발한 후 주민 쉼터, 양림동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공간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죠.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민간 주도 마을 활성화의 작은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쥬스컴퍼니 이한호 대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지만 양림동에서 양림동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림동 펄링마을 인근으로 이전하는 쥬스컴퍼니는 다양한 문화인력과의 공간 셰어링 등을 통해 '양림동 마을 이야기'를 더욱 확대시킬 예정이다. 다형다방은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주말 낮 12시 오픈)까지 문을 열어 26일 오후 6시 다형다방 프로젝트를 로징 파티를 연다. /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 미술대전 한동훈·함희석 대상

<서양화> <한국화>

한동훈 작가가 작품 '염원'으로 광주시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5일 광주시는 '제30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수상자를 발표했다. 또다른 대상에는 한국화 함희석(여름날의 기억), 수채화 송정희(조강사원의 순례자들), 문인화 송기환(바람불어 좋은날), 건축 김유민·김찬술·손수지(힐뿌리다), 한문서에 용정섭(퇴계선생시)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8개 부문에서 1557점이 경쟁을 벌여 877점이 입상했다.

최우수상은 김선미(서양화), 김희남(수채화), 강은아(한국화), 이근희(문인화), 박강부·정민규(서예), 유동성(서각) 작가가 받았다. 부상으로 대상 각 500만원, 최우수상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에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매우 고무적이었다"며 "젊고 역량 있는 대학(원)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한동훈 작 '염원'

지고 전통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작가들이 많아진 점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6월2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입상작은 이날부터 6월6일까지 추천·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떡 봄빛 품다'

### 위오남 개인전



'함박꽃의 웃음'

### 31일까지 휴랑갤러리

정겨운 동물 그림을 통해 사랑과 정(情)을 전달하는 묵선 위오남 작가가 휴랑갤러리(LH한국도주주택공사 1층)에서 31일까지 '떡 봄빛 품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역동성과 여백으로 시련함을 선사하는 수묵채색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동물과 글을 함께 담아 다양한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 '고뇌'에는 나뭇가지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공작새가 등장한다. 화려한 깃털 아래에는 써있는 '당신의 모습 속에 숨은 아픔' 글귀는 속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

습이다. 또 새 두마리가 어울리는 '알콩달콩', 잉어 두마리가 나란히 있는 '돌이어서 좋아부러' 등 정겨운 분위기의 작품을 전시한다.

실크를 감빛으로 염색해 밤 풍경을 표현한 '바람불어 좋은 날' 등 문인화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출품한다.

위씨는 광주,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6회 열었으며, 터키와 인도에서 열린 한국 문인화 초대전, 제주·광주서화교류전 등에 참여했다. 광주시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의화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문인화가모임 목취회, 여우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3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